

# SNS상에서 자기노출과 사이버불링

## Self-Disclosure and Cyberbullying on SNS

원 주 연 (Jooyeon Won) 충북대학교 대학원 국제경영정보과학 협동과정  
서 등 백 (DongBack Seo) 충북대학교 경영대학 경영정보학과, 교신저자

### 요 약

많은 사람들은 Social Networking Sites(SNS)를 그들 삶의 일부로 생각하며 사용하고 있다. SNS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 형성과 존속에 유용하게 이용되기도 하지만 사이버불링과 같은 부작용을 초래하기도 한다. 특히 사이버불링과 같은 부작용은 나이가 어릴수록 많이 나타나는데, 청소년의 20% 가까이가 사이버불링을 겪었다고 고백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이버불링에 관한 연구는 아직 초기단계에 머물러 있어 용어의 정의와 그 실태의 조사 정도가 전부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교환 이론을 도입하여 SNS의 기본 특성인 자기노출과 인간관계에 중요한 자기 통제력이 사이버불링 피해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그리고 SNS를 많이 사용한다고 알려진 20대 대학생들에게 설문지를 돌려 그 결과를 알아 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특히 사이버불링을 사이버 따돌림과 사이버 공격으로 분류하고 자기노출을 접속을 위한 자기노출과 존속을 위한 자기노출로 구분을 지었다. 그리고 두 종류의 자기노출과 자기 통제력이 두 유형의 사이버불링과 각각 어떻게 다른 상관관계를 갖는지 비교 설명하고자 한다.

**키워드 :** 사이버불링 자기노출 자기통제력 사회적 교환이론

## I. 서 론

Social Networking Sites(SNSs)는 지리적인 거리의 한계를 뛰어 넘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새로운 인터넷 서비스를 말한다(Trepte and Reinecke, 2012). SNS는 1997년 최초의 SNS인 SixDegrees.com이 출시된 이후 다양한 종류로 개발되고 전 세계로 전파되는 등 지속

적으로 발달되어 왔다(Ellison and Boyd, 2008). 이러한 SNS는 사용자간의 관계 형성 및 유지, 결속을 토대로 급속히 성장하였다(Ellison et al., 2007). 대표적으로 SNS 시장의 선두주자인 페이스북을 예로 들 수 있다. 페이스북은 21억 개 이상의 계정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월간 10억 개 이상의 계정이 활성화 되어 있다(Statista, 2016). 이것을 통해 SNS 사용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일상생활이 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특히나 SNS의 발전은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와 같이 언제 어디서나 무선으로 접속할 수 있는 스마트기기의 발달을 통해 더욱 급속히 확산되었다

† 충북대학교 발전기금재단을 통해 본 연구에 도움을 주신 ㈜상산세라믹에 감사드립니다.  
본 논문은 2016년 한국경영정보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내용을 수정 및 보완한 것임.

(민진영, 김병수, 2013). 연구에 의하면 이미 35억 개 이상의 계정이 스마트폰을 통해 SNS에 접속된 적 있으며 이 중 16억 개 이상의 계정이 활성화 되어있다(Bullas, 2015).

SNS에 가입하고 이용하기 위해서 사용자들은 SNS 내에서 링크를 공유하고, 댓글을 달고, 짧은 글을 작성하거나 공감을 하는 등의 행동을 하게 되는데 이 과정을 통해 SNS 사용자는 일정 수준 이상의 자기노출을 하게 된다. 또한 SNS의 계정을 생성할 때에도 허구의 개인정보를 사용하느냐, 실제 본인의 정보를 사용하느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역시 어느 정도는 자기노출을 하게 된다. 즉 SNS상에서의 자기노출은 모든 사용자에게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이라 할 수 있겠다.

이와 같은 이유로 SNS를 연구하는 연구자들에게 있어 자기노출은 중요한 주제로 다루어져 왔다. 긍정적인 측면에서 많은 연구자들은 자기노출이 인간관계를 구축하거나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밝혔다(Elizabeth et al., 2007; Ross et al., 2009; Sheldon, 2009). 하지만 자기노출은 온전히 긍정적인 행위로만 받아들여져야 할까? 온라인 환경의 특성 상, 온라인에 게시된 정보는 다른 사이트로 퍼 날라지기 쉬워 반 영구적으로 온라인 상을 떠돌 수도 있다. 따라서, 자기노출로 인해 공개된 정보는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공유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몇몇의 선행연구들은 자기노출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예를 들어 신원 도용이나 프라이버시 침해 등이 그것이다. 또한 소수의 연구자들은 자기노출이 사이버불링과 연관이 있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Dredge et al., 2014; Erder-baker, 2010; Henderson et al., 2010; Smith et al., 2008; Valkenburg and Peter, 2011; Walrave et al., 2012). 이러한 문제점들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지만, 주로 연구의 초점이 프라이버시 침해에 집중되어 있다. 따라서 자기노출로 인해 발생하는 다른 부작용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자기노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인 문

제는 다양하겠지만, 주목할 만한 문제 중 하나는 바로 사이버불링이다. 사이버불링이란 인터넷, 혹은 다른 기술을 통해 일어나는 개인에 대한 위협하고 치명적인 인신공격을 말하는데, 스마트폰의 발달로 인해 학교에서 사회로 그 범위가 확장되어 최근 들어 더욱 심각한 문제로 인지된다(Dooley et al., 2009; Li, 2006; Mishna et al., 2012; Willard, 2005). 영국의 기사에 따르면 SNS를 사용하는 청소년 10명 중 9명이 사이버불링을 목격한 적이 있으며, 미국 중서부의 457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약 34%의 학생들이 한 번 이상의 사이버불링을 경험한 것으로 응답하였다(Hinduja and Patchin, 2015; Kang, 2011). 이렇듯 사이버불링은 중요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SNS에 공개된 개인정보는 개인의 의사와 관계 없이 제3자에게 유출될 가능성이 높다(안수미 등, 2014). 다시 말해, 온라인 환경의 특성 상 본인 스스로 온라인에 본인의 정보를 게시하거나 사진이나 글 등을 작성하더라도 이것은 본인의 동의 없이 다른 사이트로 옮겨지기 쉽다. 뿐만 아니라 누군가가 본인의 의도와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본인의 콘텐츠를 재가공해도 게시한 사용자는 이 사실을 알 수 없을 때가 많다. 온라인, 특히 SNS에 한번 게시된 콘텐츠는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어 비방, 욕설 등 언어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사진이나 동영상은 새로운 사진에 합성되거나 원하지 않은 상태로 유출될 수 있다. 나아가 온라인 내에서 과도한 자기노출은 다른 사용자들에게 자랑하는 것으로 여겨져 사이버 공격 및 따돌림의 이유가 될 수 있다. 자기노출로 인한 사이버불링의 위험은 인터넷 사용자가 꺼안고 있는 하나의 중요한 문제이다. 이처럼 온라인에서의 자기노출로 인한 사이버불링의 피해 가능성은 온라인의 발달로 인해 점점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몇 연구자들 역시 자기노출과 사이버불링의 연관 가능성을 유추하고 있다(Erder-baker, 2010; Smith et al., 2008). 하지만 현재까지 이 관계는 실제로 연

구되지 않았는데, 따라서 본 연구는 이 관계를 가설로 세우고 SNS 사용자들의 실제 경험을 분석하여 증명하는 실증적인 연구이다. 본 연구는 사회적 교환 이론을 바탕으로 자기노출과 사이버불링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사회적 교환 이론에서는 인간의 행동을 일종의 ‘교환’행위로 간주하고, 이때 개인은 교환을 통해 자신이 얻을 이익과 비용을 계산하는 합리적인 주체로 가정한다(Blau, 1964). 본 연구는 자기노출을 일종의 ‘교환’행위로 보고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이버불링의 피해를 ‘비용’으로 가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를 위해 ‘교환’인 자기노출을 ‘접속을 위한 자기노출’과 ‘존속을 위한 자기노출’로 분류하였다. 이 후 설문을 통해 얻은 실증적이고 경험적인 데이터를 통해 두 유형의 ‘교환’(자기노출)이 ‘비용’(사이버불링)에 각각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하여 사이버불링의 피해 가능성을 지적하고자 한다. 나아가 인간관계에 중요하고 범 죄행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자기통제력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비용’인 사이버불링을 어떻게 약화 혹은 강화하는지 연구한다.

사이버불링은 주로 학교 폭력의 일종으로 다루졌으나, 모바일 기기의 발달로 인해 불링의 대상 범위가 더욱 넓어지고 시공간의 제약 없이 발생할 수 있어 그 위험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Li, 2006; Mishna *et al.*, 2012). 따라서 이에 관한 연구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지만 사이버불링의 출현 자체가 오래되지 않아 실증적이고 경험적인 연구는 적다. 본 연구는 사이버불링을 사이버 따돌림과 사이버 공격으로 나누고, 각각의 피해가 발생하는 데에 두 종류의 자기노출(‘접속을 위한 자기노출’과 ‘존속을 위한 자기노출’)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비교 연구하는데 그 의의를 두고자 한다. 뿐만 아니라 본 연구의 결과는 자기노출로 인한 실질적인 사이버불링의 피해 가능성을 SNS 사용자들에게 알려주어 경각심을 갖게 함으로 SNS 사용자들이 사이버불링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자기노출 수준을 조절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한다.

본 연구는 피해자의 관점에서 진행된다. 가령, 가해자는 남에 대해 단순한 호기심이나 자신의 즐거움 때문에 피해자를 괴롭힐 수 있다. 가해자는 피해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해 여부를 잊을 수 있지만 피해자는 그렇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가해자의 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피해자가 피해를 입었다면, 이것은 사이버불링으로 분류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피해 여부를 측정하는 데에 있어 피해자의 인지를 주요 변수로 사용하고, 이를 통해 본 연구의 결과를 비교 설명하고 있다.

## II. 이론적 배경

### 2.1 사회적 교환이론

사회적 교환이론이란 Homans(1958)가 주장한 이론이다. 사회적 교환이론에 따르면, 개개인의 다양한 행동들은 ‘사회적 교환’이며, 이것들은 일종의 유용한 상호 작용이다(Homans, 1958). 이 때 인간은 행동을 하기 전에 그 행동으로 인해 본인이 갖게 될 ‘이익’과 ‘비용’을 계산하는 합리적인 주체이며, ‘이익’과 ‘비용’은 유형일 수도 있고, 무형일 수도 있다(John and Kelley, 1959; Liu *et al.*, 2013; Posey *et al.*, 2010). 한편, Homans(1958)의 사회적 교환이론이 개인과 개인 사이의 행동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Blau(1964)는 이것을 개인과 그룹, 혹은 그룹과 그룹간의 교환으로 확장 시켰다. Homans(1958)와 Blau(1964) 모두 사회적 교환의 수단으로 ‘커뮤니케이션’을 강조한다(Blau, 1964).

많은 학자들은 자기노출을 커뮤니케이션의 기본 토대로 보고 사회적 교환이론을 적용하고 연구함에 있어 자기노출에 대해 다양하게 연구해왔다. 특히 SNS 내에서의 자기노출은 사회적 교환이론의 측면에서 계속 연구되어 왔다. 예를 들면, Liu *et al.*(2013)은 SNS 사용자들이 일종의 사회적 교환 행위인 자기노출을 하기 전에 관계의

존속(Relationship building), 즐거움(Enjoyment),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신뢰(The trust of service provider)를 이익으로 계산하며, 이것을 자기노출에 대한 이익으로 제시했다(Liu *et al.*, 2013). 또 다른 연구는 SNS 사용자들이 인지된 호혜성(Perceived reciprocity)을 자기노출의 ‘이익’으로 받아들이며 인지된 온라인 커뮤니티의 신뢰(Perceived online community trust), 프라이버시 위험(Privacy risk beliefs), 인지된 익명성(Perceived anonymity)을 자기노출의 ‘비용’으로 계산하고 있다고 밝혔다(Posey *et al.*, 2010). 반면, Lowry *et al.*(2011)의 연구는 SNS 사용자들이 프라이버시의 침해 가능성을 비용으로 여겨 자기노출이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제안하고 있으며(Lowry *et al.*, 2011), 이 연구 이외의 다른 연구들 역시 자기노출의 비용으로 프라이버시 문제를 주로 다루고 있다. 하지만 자기노출에 영향을 미칠 비용은 프라이버시뿐일까?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들과 달리, 사이버불링의 피해 가능성을 자기노출로 인한 비용으로 제시하고 있다. 사회적 교환 행동을 하는 개인은 특정 행위를 하기 전에 개인이 행위를 통해 얻을 비용과 이익을 계산하게 되는데, 이 때 비용보다 이익이 더 크다면 행위를 실천에 옮긴다(John and Kelley, 1959; Liu *et al.*, 2013; Posey *et al.*, 2010). 다시 말해 자기노출이라는 사회적 행동을 하는 SNS 사용자들은 SNS 사용으로 인해 본인이 얻게 될 어떠한 이익을 사이버불링이라는 비용보다 크게 판단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국내의 통계자료들이 보여주듯 사이버불링으로 인한 피해 신고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사이버불링으로 인해 피해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물리적인 폭력까지 행해지고 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사이버불링이 단순한 해프닝이 아닌 심각한 사회문제라는 것이 분명해진다(서진욱, 2016). SNS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사용자들은 당장의 자기노출로 본인이 얻을 이익이 비용인 사이버불링보다 크다고 판단하지만 실제 사이버불링으로 발생하는 피해가 상당하다. 즉 실제 사이버불링으로 인해 큰 피해를

당하기 전까지는 자기노출로 인한 비용을 과소평가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본 연구는 사이버불링을 자기노출로 발생하는 비용으로 제시한다. 또한 자기통제력이 높은 사람은 사이버불링이란 비용을 좀 더 현실적으로 평가할 경향이 있기에 자기통제력을 독립변수로 추가하였다.

한 번 노출된 개인의 정보는 다른 사이트로 옮겨지기 쉽다는 온라인의 특성에 따라 반영구적으로 온라인 상에 보존될 수 있다. 따라서 이것들이 악용되어 사칭과 같은 2차 피해가 발생한다면 이것은 사이버불링의 한 유형이 된다. 그렇기에 본 연구는 SNS에서의 두 종류의 자기노출(‘접속을 위한 자기노출’과 ‘존속을 위한 자기노출’)이 사이버불링 정도에 따라 분류된 사이버 따돌림과 사이버 공격과 어떠한 상관관계를 갖는지 비교 설명하고자 한다. SNS 사용자마다 자기노출을 통해 본인이 얻을 이익과 비용의 차이는 존재하겠지만, 이 연구는 이들이 인지하지 못하거나 과소평가한 사이버불링 피해 가능성이라는 새로운 비용을 증명하여 SNS를 안전하게 사용하도록 돕고자 한다. 또한 최근 민감한 사회 문제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사이버불링의 발생 가능성을 줄이고, 자칫하면 범죄에 노출될 수 있는 SNS 사용자들의 자기노출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제시하고자 한다.

## 2.2 SNS를 통한 자기노출

자기노출은 개인의 정보를 자발적으로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행위를 말한다(Collins and Miller, 1994). 이 때 SNS에서 공유되는 개인의 정보는 상태, 위치, 본인이 주최하거나 참가할 이벤트, 혹은 미래에 대한 계획 등 광범위한 사실들을 포함한다(Derlega and Grezelak, 1979). 자기노출은 SNS 사용자 사이의 신뢰를 바탕으로 서로에 대한 학습을 가능하게 한다(Zhao *et al.*, 2010). 또한 SNS 사용자가 SNS 내에서 사진, 비디오 등 본인의 콘텐츠를 직접 제작하고 올리는 것 또한 자기노출의 일종이며 이것들은 SNS 사이트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되고 있다(Chen, 2013).

SNS 사용자들은 SNS를 통해 사회적 유대감을 형성하고 다른 사용자들과 관계를 유지하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등 다양한 이익을 누릴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이익’을 얻기 위해 SNS 사용자들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 자기노출을 해야 하며, 이것은 하루에도 수만 번 발생하고 있다. 한 조사에 따르면, 가장 큰 SNS인 페이스북에는 매일 550만 개의 콘텐츠가 SNS에 업로드되고 있다(Branckaute, 2010). 나아가 매일 45억 개의 ‘좋아요’, 즉, 1분에 3,125,000개의 ‘좋아요’가 눌러지고 있다는 조사가 있다(Ho, 2015). 이러한 SNS 사용 실태로 미루어 보아 자기노출은 SNS 사용자들에게 특별하기보다는 자연스러운 행위로 여겨진다.

글을 ‘포스팅’하는 것과 ‘좋아요’를 클릭하는 등 SNS에서 할 수 있는 자기노출의 방법은 다양하지만, 자기노출의 다양한 방법을 분류하여 연구한 결과는 미흡하다. 전 세계의 많은 SNS 사용자들이 SNS 사이트들을 활발하게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SNS에서의 자기노출 방법을 자세히 연구하는 것은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SNS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기노출을 두 가지로 분류하였다. 먼저 ‘접속을 위한 자기노출’은 SNS에 접속하기 위해 계정을 생성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자기노출을 말한다. 즉 개인 프로필(profile)을 만들고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존속을 위한 자기노출’은 SNS 내에서 다른 사용자들과 관계를 존속하거나 새로 만들기 위해 이루어지는 자기노출을 말한다. 즉 글이나 사진 등을 SNS에 올리거나 댓글을 달거나 ‘좋아요’ 등을 표현하는 것이다. 이 분류를 토대로 본 연구는 두 유형의 자기노출이 사이버불링 피해 경험에 각각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 2.2.1 접속을 위한 자기노출

접속을 위한 자기노출이란 SNS의 계정을 만들기 위해 개인이 직접 입력하고 일부 공유되는 자기노출을 의미한다. SNS를 사용하기 위해서 SNS

의 새로운 사용자들은 정보의 진실 여부와 관계 없이 필수적으로 개인의 프로필을 설정해야만 한다. 예를 들어 페이스북에서 계정을 만들기 위해서 새로운 사용자는 본인의 이름이나 별명을 필수로 기입해야 하고, ID는 이메일, 혹은 본인의 연락처가 된다. 또한 프로필 사진이나 연애 상태(예: 결혼, 약혼, 자유로운 연애 등)를 선택적으로 기입하고 이것은 본인의 담벼락에 공개된다. 이러한 접속을 위한 자기노출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구분 없이 유지하도록 하며, SNS 사용자들을 식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Danah, 2008; Ellison and Boyd, 2008).

### 2.2.2 존속을 위한 자기노출

SNS 사용자들이 SNS를 사용하는 가장 큰 동기는 바로 관계의 존속이다(Barker, 2009). 존속을 위한 자기노출은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만들고 존속하기 위해 행해지는 SNS 내의 자기노출을 말한다. 다시 말해 이 유형의 자기노출은 직접 SNS에 글을 쓰거나, 개인의 콘텐츠(사진, 동영상 등)를 공유하고, 공감(예: 좋아요)을 누르는 행위들을 포함한다. 더불어 다른 사용자들이 이미 포스팅한 콘텐츠에 댓글을 달거나 게시한 글을 공유하는 행위 역시 다른 사람의 콘텐츠를 통해 본인의 의견이나 생각을 표현한다는 점에서 존속을 위한 자기노출로 분류된다. 따라서, 존속을 위한 자기노출은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기 위해 정보를 공유하는 모든 행위를 일컫는다.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SNS 사용자들은 상당한 수의 콘텐츠 공유와 좋아요 등 존속을 위한 자기노출을 반복해 오고 있다(Branckaute, 2010; Ho, 2015). 이러한 자기노출을 통해 사람들은 소속감을 느끼거나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기도 한다(Irwin and Dalmas, 1973).

## 2.3 사이버불링

### 2.3.1 사이버불링의 정의 및 특징

사이버불링은 인터넷이나 핸드폰 등 새로운 정

보 통신 기술의 발달로 새롭게 등장한 괴롭힘 형태이다(Li, 2006). 오프라인에서 대면 관계로 타인을 괴롭히던 것에서 나아가, 모바일 기기의 등장은 가해자가 모바일 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 곳이라면 언제든 피해자를 괴롭힐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다. 다시 말해 통신 기술의 발달은 괴롭힘의 영역을 학교에서 집과 사회로,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넓히는 역할을 했다(Li, 2006; Mishna *et al.*, 2012). 이러한 정보통신 기술은 최근 급속히 발달되었기 때문에 사이버불링의 역사 또한 오래지 않다. 따라서 사이버불링의 정의는 아직 불분명하며, 다양한 학자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사이버불링을 정의하고 있다. Willard(2005)의 연구에서 사이버불링은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등장한 인터넷이나 다른 기술들을 통해 행해지는 위험하고 치명적인 공격들을 말한다(Willard, 2005). 한편 다른 학자는 사이버불링을 온라인을 통해 의도적이고 반복적으로 괴롭히는 행위로 성적인 공격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한다(Hinduja and Patchin, 2015). 이 정의에서 나아가 Belsey *et al.*(2012)의 연구는 사이버불링의 가해와 피해의 대상을 개인 뿐 아니라 그룹으로 확대시켜 정의하였다(Belsey, 2004). 이렇듯 다양한 정의들이 존재하지만, 본 연구는 다른 학자들의 정의를 포함하여 사이버불링을 정의한 Marées *et al.*(2012)의 연구를 통해 사이버불링을 연구하였다. Marées *et al.*(2012)은 사이버불링을 정보 통신 기술로 개발된 도구를 통한 개인, 혹은 그룹의 의도적이고 반복적인 공격으로 정의하였다(Marées and Petermann, 2012).

사이버불링의 정의가 학자에 따라 다양한 것과 달리, 많은 학자들은 사이버불링의 공통적인 특징에 대해 대부분 동의한다. 이 특징은 의도적(Intention)이고 반복적(repetitiveness)이며 힘의 불균형(the imbalance of power)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가해자는 온라인에서 의도적이고 반복적으로 피해자를 괴롭히는 것이 사이버불링의 주된 특징이다. 이 때 가해자가 위협적인 콘텐츠를 제작하는 능력이 피해자에 비해 높거나, 가상세계에서

높은 사회적 지위를 갖고 있을 경우 가해자는 피해자를 괴롭히는 것이 더욱 수월하며, 이것은 힘의 불균형이라는 사이버불링의 특성을 보여준다(Cleemput and Vandebosch, 2008; Hinduja and Patchin, 2015; Langos, 2012; Menesini *et al.*, 2012; Nocentini *et al.*, 2010). 나아가 사이버불링의 발생 장소가 온라인이며 이것이 기존의 괴롭힘과 차이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몇몇의 학자들은 익명성(Anonymity)과 자연상태의 대중(Public in the nature)을 포함하기도 한다(Nocentini *et al.*, 2010).

### 2.3.2 사이버불링의 유형

현재까지 사이버불링은 크게 두 연구를 통해 분류되었다. 첫 번째는 사이버불링을 7개로 분류하는 방식이다. 이것은 첫째, 메시지를 통해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플레이밍(flaming), 둘째, 공격적인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내는 괴롭힘(harassment), 셋째, 위협이나 협박을 포함하는 사이버 스토킹(cyberstalking), 넷째, 개인의 평판을 실추시키기 위해 사실이 아니거나 치명적인 정보를 온라인에 올리는 명예훼손(denigration), 다섯째, 다른 사람을 사칭해 명예를 저해시킬 행위를 하는 사칭(masquerade), 여섯째, 동의 없이 타인의 비밀이나 정보를 폭로하는 아웃팅과 눈속임(outing and trickery), 마지막으로 한 명을 온라인 활동에서 배제시키는 따돌림(exclusion)을 말한다(Willard, 2005). 두 번째로, 이 Willard의 분류를 다시 4개의 유형으로 분류하는 방식이다(Menesini *et al.*, 2012; Naruskov *et al.*, 2012; Nocentini *et al.*, 2010). 이것은 언어폭력(Written-verbal), 시각폭력(visual), 따돌림(exclusion), 사칭(impersonation)을 말한다. 먼저 언어폭력(written-verbal)은 전화, 문자 메시지, 이메일, 메신저 어플리케이션, 블로그, SNS 등을 통한 언어 폭력을 말한다. 또한 시각폭력(visual)은 시각적인 자료(예: 사진, 동영상 등)를 모바일 기기나 인터넷을 통해 전송하고 포스팅하여 타인과 공유하는 행위의 괴롭힘이다. 따돌림(exclusion)은 배제시키려는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온라인에

서 특정인을 따돌림 시키는 것이며, 마지막으로 사칭은 다른 특정인의 이름이나 온라인 계정을 이용해 무단으로 그 사람의 정보를 훔치거나 공개하는 행위를 말한다(Menesini *et al.*, 2012; Naruskov *et al.*, 2012; Nocentini *et al.*, 2010).

본 연구는 Nocentini *et al.*(2010)의 연구를 바탕으로 다시 한 번 사이버불링을 분류하였다. 먼저 사이버 공격이란 언어 폭력과 시각 폭력을 통합하여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능동적인 사이버불링을 의미한다. SNS의 특성 상 대부분의 콘텐츠는 언어와 시각적 자료가 합쳐진 상태로 온라인에 게시되기 때문에 언어폭력과 시각폭력을 나누는 것보다 두 유형을 통합하여 연구하는 것이 SNS 내의 사이버불링을 연구하는 데 있어 더욱 기여하는 것이 클 것이라 추측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사이버 따돌림은 Nocentini *et al.*(2010)의 연구에서 사용된 따돌림의 개념을 그대로 적용하였다. 사이버 따돌림은 특정인을 은밀하게 단체나 모임에서 배제시키는 것으로 다소 소극적인 사이버불링을 의미한다. 한편 본 연구는 Nocentini *et al.*(2010)의 연구에서 분류된 사이버불링의 마지막 유형인 사칭을 제외하고 연구하였다. 사칭은 범위의 정도에 따라 정신적, 신체적, 경제적인 피해를 모두 유발할 수 있는 심각한 차원의 범죄로 발전될 수 있는 유형이다. 그렇기 때문에 본 연구의 설문 대상인 대학생들이 본 변수의 피해 경험에 대해 사실대로 응답하지 않거나 의도적으로 대답을 피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판단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사칭의 피해 경험을 제외한 나머지 두 유형의 피해 경험에 초점을 맞추었다.

### III. 연구설계 및 가설 설정

#### 3.1 사이버불링 피해 경험

본 연구는 사이버불링을 사이버 공격과 사이버 따돌림으로 분류하였다. 이 중 사이버 따돌림은 피해자를 무리에서 배제하려는 의도에서 비롯

된 행위이다 반면 사이버 공격은 가해자가 피해자를 괴롭히는 것을 의미한다. 이 둘의 차이는 피해수준에 따라 달라진다. 사이버 따돌림을 당했을 경우 대부분의 피해는 심리적 소외감, 외로움, 가해자와의 심리적 갈등 등 심리적인 차원의 문제를 유발한다. 한편 사이버 공격은 피해 강도에 따라 심각한 차원의 범죄로 발전할 수도 있다. 실제로 국내외에서 많은 연예인들이 악플이나 사생활 동영상 유출 문제로 자살을 하기도 했다. 따라서 사이버 따돌림이 심리적 불편함을 유발한다면, 사이버 공격은 실질적인 피해를 통해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유발할 수 있는 더 위험한 수준의 사이버불링으로 여겨진다.

특히 본 연구가 피해자의 관점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단순한 가해자와의 관계보다는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온라인 환경을 통해 어떠한 피해를 입을 것인가에 관한 문제를 주목해야 한다. 서론에서 언급했듯이 온라인 환경의 특성 상, 한번 온라인 내에서 공유된 정보는 다른 사이트로 쉽게 공유될 수 있으며 반 영구적인 보존 또한 가능하다. 즉,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인터넷에 업로드된 피해자의 사진이나 동영상, 혹은 피해자의 평판을 낮출 만한 수준의 글이나 댓글은 반 영구적으로 남아 피해자에게 정신적, 육체적인 고통을 줄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사이버 공격 피해 경험을 더욱 심각한 수준의 사이버불링으로 분류하였다.

사이버 따돌림은 소극적인 사이버불링으로 가해자는 처음에는 소극적으로 한 특정인에 대해 사이버상에 자신이 속한 사회적 모임이나 그룹에서 그 특정인을 배제하려 할 수 있다. 하지만 그런 본인의 노력에 대한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으면 그 특정인에 대한 사이버불링의 강도는 높아질 수가 있다(박경숙, 1998). 따라서 가설 1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었다.

H1: 사이버 따돌림을 당한 사람은 사이버 공격을 당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 3.2 자기노출과 사이버불링 피해 경험

많은 선행 연구들은 자기노출을 통해 얻게 될 온·오프라인의 긍정적인 이익들을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관계의 발전(the development of relationship), 심리적 안녕(the psychological well-being), 사회적 매력력(social attraction) 등은 자기노출을 통해 향상시킬 수 있는 것들이다(Irwin and Dalmas, 1973; Jourard, 1964). 하지만 몇몇의 선행연구는 자기노출로 인한 부작용의 발생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지적 재산권(the intellectual property),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privacy issue) 등의 문제는 무시할 수 없는 문제이다(Chen, 2013; Henderson *et al.*, 2010; Liu *et al.*, 2013; Lowry *et al.*, 2011; Posey *et al.*, 2010; Wakefield, 2013). 나아가 몇몇의 선행 연구들은 자기노출이 사이버불링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하고 있으나 이 관계는 실제로 연구되지는 않았다(Dredge *et al.*, 2014; Erder-baker, 2010; Henderson *et al.*, 2010; Smith *et al.*, 2008; Valkenburg and Peter, 2011; Walrave *et al.*, 2012). 특히 온라인 환경의 특성상 개인이 노출한 정보가 다른 사이트로 쉽게 퍼 날라질 수 있기 때문에, 2차 피해를 유발하기 쉽다. 이를 통해 자기노출과 사이버불링은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접속을 위한 자기노출’은 SNS의 계정을 생성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기노출이다. 이것은 다른 사용자와 본인을 식별하기 위한 프로필 정보가 된다. 하지만 프로필을 과도하게 자주 변경하는 행위는 다른 사람들에게 본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좋아하거나 자랑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일종의 “자랑(Showing off)” 행위는 오프라인 환경에서 따돌림을 당하는 요인 중 하나로 여겨져 연구되어 왔다(Bronwyn, 1982). 따라서 이것을 SNS 환경에 적용했을 때, 본인을 보여주는 자기노출의 유형인 ‘접속을 위한 자기노출’ 또한 사이버 따돌림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더 나아가 ‘접속을 위한 자기노출’은 사이버 공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나 ‘접속을 위한 자기노출’은 사이버 공격보다 사이버 따돌림에 더 강하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한편 Kuss and Griffiths(2011)의 연구는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자신을 홍보하기 위해 본인의 SNS 프로필 정보를 기재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증명했으며(Kuss and Griffiths, 2011), 이것은 다시 말해 낮은 자존감이 접속을 위한 자기노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낮은 자존감은 학교폭력 중 따돌림 피해 경험을 예측하는 주요 변인 중 하나이며(이경희, 2005), 학교폭력의 일부는 사이버공간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다(Beran and Li, 2008). 정리하자면, 낮은 자존감은 각각 접속을 위한 자기노출과 따돌림 피해 경험과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으며, 따돌림의 일부는 사이버공간에서 발생한다는 것이 선행연구를 통해 증명되었다. 본 연구는 위와 같은 선행연구를 통해 접속을 위한 자기노출과 사이버 따돌림간의 관계가 있을 것이라 예측하고, 이 상관관계를 연구하기 위해 가설 2를 설정하고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H2:** ‘접속을 위한 자기노출’은 사이버 공격 피해경험보다 사이버 따돌림 피해 경험에 더 강하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존속을 위한 자기노출’은 다른 사람과의 직접적인 관계를 맺고 유지하기 위한 행위이다. SNS 내에서 콘텐츠를 게시하고, 댓글을 다는 등의 자기노출은 다른 사용자와 직접적인 상호관계를 하는 데 중요하다. 또한, 상호작용은 SNS 사용자들이 지속적으로 SNS를 사용하게 하는 중요한 특성이다(김대진, 김진수, 2015). 하지만 이것은 다른 사용자들에게 공격의 대상이 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왜냐하면, 프로필은 불특정 다수를 위한 콘텐츠이지만 댓글 등은 특정인을 위한 콘텐츠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SNS에서 과도한 콘텐츠의 게시는 이것과 관련된 특정인들에 대한 루머를 야



기할 수 있다. 게다가 본인이 직접 SNS에 업로드한 사진이 차후에 본인이 원하지 않는 형태로 가공되어 원하지 않는 사이트에 게재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존속을 위한 자기노출이 사이버 따돌림 보다 사이버 공격 피해 경험과 더 큰 관련이 있다고 간주하고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 가설 3을 설정하여 비교 분석하다.

H3: ‘존속을 위한 자기노출’은 사이버 따돌림 피해경험보다 사이버 공격 피해 경험에 더 강하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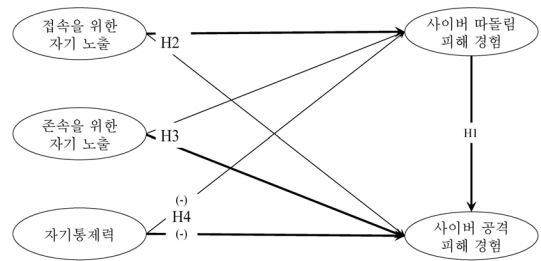
### 3.3 자기통제력과 사이버불링 피해 경험

자기 통제력(Self-control)은 스스로 본인의 인지나 정서, 행동을 원하는 대로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Logue, 1995). 자기 통제력은 꾸준히 범죄학 분야에서 많이 연구되어 온 중요한 특성이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낮은 수준의 자기 통제력은 오프라인 괴롭힘의 가해자, 혹은 피해자에게 자주 발견되는 속성이다(Haynie et al., 2001). 한편, 사이버불링이 모바일 기기를 통한 폭력의 일종이기 때문에(Li, 2006; Mishna et al., 2012), 자기통제력과 사이버불링의 피해경험 또한 유효한 관계가 있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실제로 자기통제력이 사이버불링의 피해, 가해경험에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결과가 있다(김은경, 2012).

온라인, 특히 SNS는 일방향 커뮤니케이션이 아닌 개인과 개인, 혹은 개인과 그룹의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을 특징으로 한다(Kietzmann et al., 2011). 다시 말해, SNS 사용자가 다른 사용자와 관계를 맺을 때, 이들과 접촉하고, 대응하는 것을 SNS 커뮤니케이션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SNS의 다른 사용자가 본인에게 어떠한 행위를 했을 때, 이것에 반응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이 반응하는 행위는 일종의 ‘자기 통제력’을 반영한다. 가령, 다른 사용자가 SNS에서 불쾌한 커뮤니케이션을 시도했을 때, 본인이 본인의 기본에

따라 과도하게 반응할 수도 있고,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무시할 수도 있다. 이것은 상대방의 다음 반응에 영향을 미친다. 지나친 대응이 상대방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이것은 사이버 공격으로 이어져 욕설을 하거나 평판을 나쁘게 할 수 있는 글을 작성할 수도 있다. 즉, 본인의 자기 통제력 수준에 따라 사이버 공격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양방향으로 오고 가는 커뮤니케이션에서 낮은 자기 통제력은 단순한 사이버 따돌림 보다는 사이버 공격을 자극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그러므로 아래와 같이 가설 4를 설정하였다.

H4: 자기통제력은 사이버 따돌림 피해경험보다 사이버 공격 피해경험에 더 강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림 1〉 가설 요약

## IV. 연구방법

### 4.1 표본수집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나이가 어린 청년 층이 중·장년층에 비해 자기노출을 하는 데 거리낌이 적다고 한다(Henderson et al., 201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SNS를 사용하는 대한민국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이 진행되었다. 표본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인구통계학 질문인 학년, 성별, 선호하는 SNS, 하루 평균 SNS를 사용하는 시간을 질문하였다.

본 설문을 수행하기에 앞서 분석에 필요한 설문지가 타당성과 신뢰도를 갖추고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 설문을 실시하기 전 2016년 5월 1일과 2일 구글 docs를 통해 총 3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였으며 20명의 응답자들에게 측정 문항의 애매모호함과 어려운 문항에 대한 피드백을 통하여 일부 설문 문항을 수정하였으며 본 설문을 실시하기 위한 준비를 하였다.

한국정보화진흥원(2009)에 따르면 SNS는 SNS 유사 서비스, 광의의 SNS, 협의의 SNS로 분류되는데 본 설문에서 사용된 ‘선호하는 SNS’는 광의의 SNS와 협의의 SNS를 각각 예시로 들어 주요 보기로 제시하였다. 광의의 SNS로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인스턴트 메신저인 카카오톡을, 협의의 SNS로는 ‘인맥관리 서비스’로 세부 분류되는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스토리, 인스타그램을 보기로 제시하였다. 나아가 가상현실서비스, 블로그 혹은 미니홈피, 인터넷 카페 등은 SNS 유사서비스, 혹은 광의의 SNS로 분류되고 있으나 그 종류가 다양하여 일일이 제시하지 않았으며 ‘기타’ 항목으로 기재하여 응답자들이 자유로운 응답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한국정보화진흥원, 2009).

본 설문은 2016년 5월 3일부터 11일까지 약 8일간 구글 docs를 통해 진행되었다. 인터넷을 통해 배부된 설문지의 개수는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우나 총 201부의 설문지를 회수하였다. 이 중 한 척도로 모든 문항에 응답하는 등 불성실한 11개의 응답을 제외한 190개의 데이터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190명의 응답자는 남자가 55명(28.9%), 여자가 135명(71.1%)으로 구성되었으며 1학년이 26.3%, 2학년은 18.95%, 3학년은 24.2%, 그리고 4학년은 30.55%로 응답되었다. 선호하는 SNS를 묻는 질문에는 복수 응답이 허용되었으며 카카오톡은 응답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SNS로 총 190명 중 117명(61.5%)가 선택하였고 뒤이어 페이스북(53.2%), 인스타그램(28.95%) 등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타를 선택한 응답자는 1명으로 온라인 커뮤니티(다음 카페)를 선호하는 SNS로 골랐다. 하루 평균

SNS 사용 시간은 2시간 이상인 사용자가 전체의 35.8%로 가장 많으며 전체 참여자 중 145명(76.3%)이 하루에 한 시간 이상 SNS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 분석에 사용된 응답자들의 데이터는 <표 1>의 인구 통계학적 특성을 갖는다.

<표 1>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문항	항목	명(비율)
성별	남자	55(28.9%)
	여자	135(71.1%)
학년	1학년	50(26.3%)
	2학년	36(18.95%)
	3학년	46(24.2%)
	4학년	58(30.55%)
선호하는 SNS (복수응답 가능)	페이스북	101(53.2%)
	트위터	13(6.8%)
	카카오톡스토리	1(0.5%)
	카카오톡	117(61.5%)
	인스타그램	55(28.95%)
	기타 (커뮤니티사이트)	1(0.5%)
하루 평균 SNS 사용 시간	없음	0
	30분 미만	13(6.8%)
	30분~1시간	32(16.8%)
	1시간~1시간 30분	49(25.8%)
	1시간 30분~2시간	28(14.7%)
2시간 이상	68(35.8%)	

설문 문항은 5개의 구성개념을 통한 22개의 측정문항과 4개의 인구통계학적 문항(성별, 학년, 선호하는 SNS, 하루 평균 SNS 사용 시간)이 포함된 총 26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이 설문 데이터들은 Smart PLS(Partial Least Square)를 통해 분석되었다.

## 4.2 측정항목

### 4.2.1 측정문항 및 참고문헌

본 연구는 선행 연구를 기반으로 기존에 있던 설문 문항들을 구성 개념에 맞게 재 구성하여 사용하였다. 설문 문항은 <표 2>와 같이 5개의 구성

〈표 2〉 측정문항 및 참고문헌

측정항목	측정문항	평균	표준편차	참고문헌
접속을 위한 자기노출	나는 SNS를 사용할 때 “연애 상태(예시: 결혼, 약혼, 자유로운 연애 중 등)” 바꾸기를 (1) 전혀 하지 않는다~(7) 매우 자주 한다	2.379	1.650	Carpenter (2012)
	나는 SNS를 사용할 때 “학력정보(예시: 학교, 전공, 학년 등)” 바꾸기를 (1) 전혀 하지 않는다~(7) 매우 자주 한다	3.332	1.886	
	나는 SNS를 사용할 때 프로필의 수정 혹은 업데이트를 (1) 전혀 하지 않는다~(7) 매우 자주 한다	3.726	1.739	
존속을 위한 자기노출	나는 대체로 SNS를 사용할 때, 다른 사람의 글이나 사진, 동영상에 댓글 달는 것을 (1) 전혀 게시하지 않는다~(7) 매우 자주 게시한다	4.326	1.593	Ross et al. (2009)
	나는 대체로 SNS를 사용할 때, 다른 사람의 SNS에 게시물(예시: 글, 사진, 혹은 동영상 등) 올리기를 (1) 전혀 게시하지 않는다~(7) 매우 자주 게시한다	3.395	1.535	
	나는 대체로 SNS를 사용할 때, SNS에 사진이나 동영상 올리기를 (1) 전혀 게시하지 않는다~(7) 매우 자주 게시한다	3.658	1.666	
	나는 대체로 SNS를 사용할 때, 댓글로 사진이나 그림 올리기를 (1) 전혀 게시하지 않는다~(7) 매우 자주 게시한다	3.447	1.717	
자기통제력	*나는 대체로 재미를 위해서라면 위험한 일도 할 수 있다.	5.226	1.651	하창순 (2004)
	*나는 대체로 결과를 생각하기보다 기분에 따라 행동하는 경향이 있다.	4.084	1.685	
	*나는 대체로 나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일이라면 목적과 상관없이 무엇이든 한다.	5.111	1.634	
사이버 따돌림 피해 경험	나는 SNS를 사용하면서 “관계(예시: SNS 내의 그룹 가입, ‘친구’맺기 등)”맺기 신청했다가 거절당한 경험이 있다	2.558	1.520	Prinstein et al. (2001)
	나는 SNS를 사용하면서 글이나 댓글을 올렸지만 호응이 없었던 적이 있다	3.695	1.633	
	나는 SNS를 사용하면서 다른 사용자들이 내가 그들과 어울리고 싶어하는 것을 알지만 글이나 댓글에서 무시당해 본 적이 있다.	2.289	1.287	
사이버 공격 피해 경험	나는 SNS를 사용하면서 나의 계정이 차단된 적이 있다	2.095	1.244	Kwan and Hamer et al.(2014), Skoric (2013)
	나는 SNS를 사용하면서 욕설이나 모욕적인 글, 댓글을 받았던 적이 있다.	2.174	1.363	
	나는 SNS를 사용하면서 나의 평판을 나쁘게 할 수 있는 글이나 댓글을 본 적이 있다.	2.347	1.503	
	나는 SNS를 사용하면서 나에게 관한 어떤 글이나 댓글로 인해 다른 사람이 나에게 대해 오해를 한 적이 있다.	2.405	1.567	
	나는 SNS를 사용하면서 나를 웃음거리로 만드는 글이나 댓글을 읽은 적이 있다.	2.279	1.422	
	나는 SNS를 사용하면서 내가 숨기고 싶어하는 동영상이나 사진이 SNS에 유출된 적이 있다.	2.800	1.749	
	나는 SNS를 사용하면서 나를 웃음거리로 만드는 사진이나 동영상이 SNS에 게시된 적이 있다.	2.768	1.642	
나는 SNS를 사용하면서 내가 공개하고 싶지 않은 사진이나 동영상이 SNS에 게시된 적이 있다.	2.989	1.808		

\*Reverse Coding

개념을 통한 22개의 측정 문항과 4개의 인구통계학적 문항(성별, 학년, 선호하는 SNS, 하루 평균 SNS 사용 시간)을 포함하였다. 이것을 측정하기 위해 인구통계학적 설문을 제외한 모든 설문은 7점 리커트 척도에 따라 ‘(1)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7) 매우 그렇다’에 걸쳐 측정되었다. 또한 설문 문항의 특성에 따라 ‘(1) 전혀 (게시)하지 않는다’에서 ‘(7) 매우 자주 (게시)한다’로 조사되기도 하였다. 5개의 구성개념 중 자기통제력을 측정하는 문항들은 문항의 특성에 따라 모든 문항을 역으로 코딩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자세한 측정 문항과 참고 문헌은 <표 2>와 같으며, 설문 문항들은 PLS(Partial Least Square)를 통해 타당성과 신뢰도 등을 검증하여 분석에 적합한 문항으로 검증되었다(Carpenter, 2012; Hamer et al., 2014; Kwan and Skoric, 2013; Prinstein et al., 2001; Ross et al., 2009; 하창순, 2004).

한편, 본 연구에서 사용한 인구통계학적 문항

(성별, 학년, 선호하는 SNS, 하루 평균 SNS 사용 시간)이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사이의 관계에 특정한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인구통계학적 문항을 통제변수로 설정한 후 분석을 하였다. 분석 결과 통제변수와 종속변수만 있는 모델에서 결정계수(R-squared)가 사이버 따돌림 피해경험에 0.030으로 그리고 사이버 공격 피해경험에 0.036으로 무의미한 값이 나왔다. 또한 본 연구에서 제안한 모델, 종속변수를 제외하고 독립변수만 있는 모델과 종속변수와 독립변수 모두를 포함한 모델에서 결정계수(R-squared)의 차가 거의 없음을 확인하였다(<표 3> 참조). 따라서 통제변수가 본 연구 모델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자세한 결과는 <표 3>과 같으며, Step 1은 인구통계학 문항을 통제변수로 사용하였을 때의 분석결과이며 Step 2는 통제변수를 넣지 않고 분석했을 때의 결과이고 Step 3은 모든 변수를 넣었을 때 분석이다.

<표 3> 통제변수의 통제여부

	Step 1 (통제변수만)		Step 2 (통제변수 없이 독립변수만)		Step 3 (모든 변수를 포함)	
	사이버 따돌림 피해경험	사이버 공격 피해경험	사이버 따돌림 피해경험	사이버 공격 피해경험	사이버 따돌림 피해경험	사이버 공격 피해경험
사이버 따돌림 피해경험				0.487***		0.478***
접속을 위한 자기노출			0.192*	-0.022	0.202**	-0.023
존속을 위한 자기노출			0.122	0.145*	0.117	0.152*
자기통제력			-0.229***	-0.095	-0.240***	-0.094
성별	-0.037	-0.074			-0.065	-0.019
학년	0.022	0.078			0.023	0.067
페이스북	0.110	0.101			-0.003	0.052
트위터	0.038	0.152			0.056	0.125
카카오스토리	0.015	-0.008			-0.023	0.034
카카오톡	0.019	0.066			0.041	0.047
인스타그램	-0.089	0.019			-0.037	0.000
기타	-0.027	-0.015			-0.052	-0.010
SNS 사용시간	0.017	0.019			-0.065	0.025
R-squared	0.030	0.036	0.146	0.325	0.162	0.345

유의수준: \*  $p < 0.05$ , \*\*  $p < 0.01$ , \*\*\*  $p < 0.001$ .

4.2.2 신뢰성 및 타당성 분석

PLS를 이용하여 설문지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분석하기 위해 설문에서 사용된 구성개념과 측정 문항에 대해 내적 일관성(internal consistency)과 판별타당성(discriminant validity)을 검증해야 한다. 측정 문항의 내적 일관성은 복합 신뢰도(composite reliability), 평균분산추출(AVE) 및 크론바흐 알파(Cronbach's Alpha) 계수를 통해 검증하였다. 복합

신뢰도는 Bagozzi *et al.*(1988)의 기준치인 0.7 이상 일 때 가장 안정적인 것으로 판단된다(Bagozzi and Yi, 1988). <표 4>에서 보는 것처럼 모든 항목의 복합 신뢰도가 0.7 이상의 값을 갖고 있어 신뢰가 높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모든 구성개념의 AVE값도 기준치인 0.5 이상으로 나타났다(Fornell and Bookstein, 1982). 크론바흐 알파 계수는 0.7 이상의 값이 타당한 모델이며 본 모델은 크론바흐 알파

<표 4> 신뢰성, 타당성 및 적합도 검증

	AVE	복합신뢰도	Cronbach's Alpha	GoF
접속을 위한 자기노출	0.626	0.832	0.701	0.378
존속을 위한 자기노출	0.614	0.888	0.843	
자기 통제력	0.679	0.864	0.765	
사이버 따돌림 피해 경험	0.610	0.862	0.786	
사이버 공격 피해 경험	0.605	0.915	0.892	

<표 5> 측정항목별 교차적재량 측정

측정항목	교차적재량				
	접속을 위한 자기노출	존속을 위한 자기노출	자기통제력	사이버 따돌림 피해 경험	사이버 공격 피해 경험
접속을 위한 자기노출 1	<b>0.6486</b>	0.2465	-0.0029	0.1938	0.0582
접속을 위한 자기노출 2	<b>0.8907</b>	0.4424	-0.0456	0.2826	0.1849
접속을 위한 자기노출 3	<b>0.8149</b>	0.5973	-0.0957	0.1552	0.2001
존속을 위한 자기노출 1	0.4321	<b>0.7605</b>	-0.1478	0.1661	0.2243
존속을 위한 자기노출 2	0.4441	<b>0.8712</b>	-0.1374	0.2479	0.2503
존속을 위한 자기노출 3	0.4905	<b>0.7267</b>	-0.2257	0.2754	0.1949
존속을 위한 자기노출 4	0.3683	<b>0.7303</b>	-0.1043	0.1265	0.1723
존속을 위한 자기노출 5	0.4001	<b>0.819</b>	-0.1007	0.2066	0.249
자기통제력 1	0.0437	-0.0213	<b>0.8052</b>	-0.1969	-0.1964
자기통제력 2	-0.0978	-0.213	<b>0.8376</b>	-0.2637	-0.2101
자기통제력 3	-0.0927	-0.2138	<b>0.8283</b>	-0.1808	-0.2068
사이버 따돌림 피해 경험 1	0.339	0.2469	-0.1703	<b>0.7284</b>	0.4141
사이버 따돌림 피해 경험 2	0.2354	0.2315	-0.2319	<b>0.7691</b>	0.348
사이버 따돌림 피해 경험 3	0.1697	0.2121	-0.2151	<b>0.8196</b>	0.4191
사이버 따돌림 피해 경험 4	0.1097	0.1554	-0.2084	<b>0.8034</b>	0.508
사이버 공격 피해 경험 1	0.1328	0.1576	-0.124	0.3278	<b>0.7426</b>
사이버 공격 피해 경험 2	0.0407	0.182	-0.1809	0.3496	<b>0.7674</b>
사이버 공격 피해 경험 3	0.1047	0.167	-0.1837	0.2971	<b>0.7049</b>
사이버 공격 피해 경험 4	0.2286	0.2397	-0.1992	0.4302	<b>0.7493</b>
사이버 공격 피해 경험 5	0.1856	0.2452	-0.1926	0.4733	<b>0.8128</b>
사이버 공격 피해 경험 6	0.1849	0.2524	-0.2164	0.4819	<b>0.7994</b>
사이버 공격 피해 경험 7	0.1544	0.2527	-0.2332	0.5259	<b>0.8598</b>

계수가 모두 0.7 이상의 값으로 검증하는 데 적합한 수준의 내적 일관성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판별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교차적재량(Cross Loading)을 측정하였다. 확인 결과, 각 구성개념에 적재된 문항들의 값이 다른 구성개념에 적재된 값보다 높게 나타나 본 설문문의 설문 문항이 연구에 타당한 것으로 해석하였다. 자세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또한 구성개념 간 상관계수의 가장 큰 값이 각 구성개념의 AVE의 제곱근 값 중 가장 작은 값보다 작은 경우 판별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된다(Fonell and Larcker, 1981). <표 6>와 같이 본 연구의 AVE의 제곱근 값 중 가장 작은 값은 0.778(사이버 공격 피해 경험)이고 가장 큰 상관계수의 값은 0.549(존속/접속을 위한 자기노출)이다. 따라서 AVE의 제곱근 중 가장 작은 값이 상관계수의 가장 큰 값보다 크기 때문에 판별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표 6> 참조).

#### 4.2.3 적합도 검증

본 연구에서 사용된 연구 모델에 대한 적합도 분석은  $R^2$ , AVE 및 전체 적합도(Goodness-of-fit, GoF)로 평가할 수 있다. 또  $R^2$ 는 0.1 이상의 값을 가져야 일반적으로 적합성을 갖고 있다고 보여 지는데 본 연구에 사용된 사이버 따돌림 피해 경험과 사이버 공격 피해 경험의  $R^2$ 는 모두 0.1 이

상의 값을 갖고 있어 적합한 것으로 평가된다(<그림 2> 참조)(Orth and Robins, 2014). 한편 GoF는  $R^2$ 의 평균값과 AVE의 평균값을 곱한 값의 제곱근으로 계산된다. GoF가 0.1 이상이면 분석에 사용된 모델이 분석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본 연구는 분석에 알맞은 모델임을 보여 준다(Tenenhous *et al.*, 2005)(<표 4>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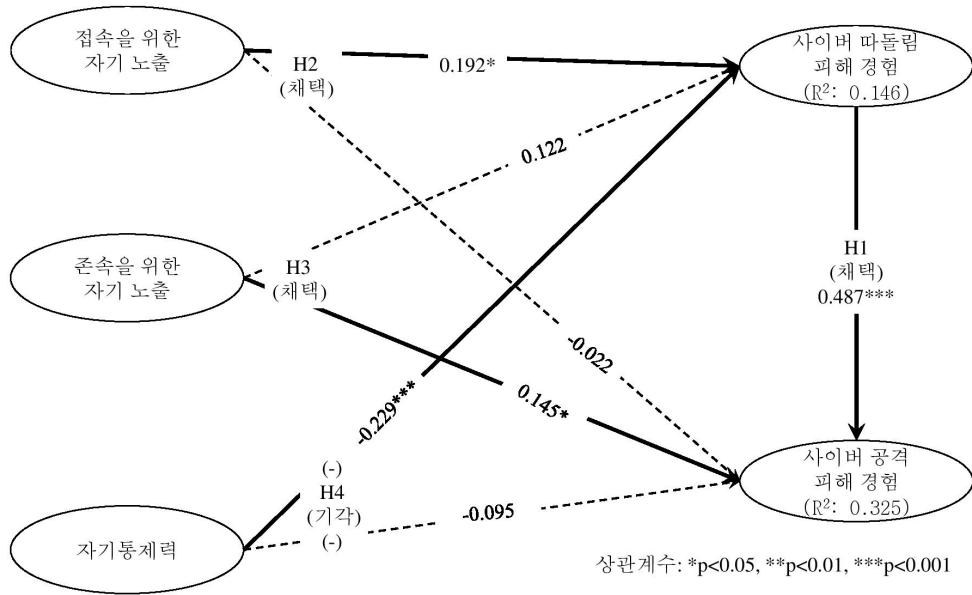
#### 4.2.4 가설검증

<그림 2>에서 보는 것과 같이 4개의 가설 중 가설 1~가설 3은 채택되었고, 가설 4는 기각되었다. 먼저 가설 1로 알 수 있듯 사이버 따돌림 피해 경험은 사이버 공격 피해 경험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다. 또한 두 유형의 자기노출(접속을 위한 자기노출, 존속을 위한 자기노출)은 모두 사이버 불링 피해 경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가설 2와 가설 3과 같이 이 두 종류의 자기노출이 각각 다른 종류에 사이버불링에 영향을 미친다. 즉 ‘접속을 위한 자기노출’은 사이버 따돌림에, ‘존속을 위한 자기노출’은 사이버 공격 피해 경험에 큰 영향을 주었다. 한편 자기통제력은 사이버 공격 피해 경험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클 것이라고 가설을 만들었으나 이와 반대로 사이버 따돌림 피해 경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 가설 4가 기각되었다. 자세한 가설의 검증 내용과 데이터 분석 결과는 <그림 2>와 같다.

<표 6> AVE 제곱근 값 및 구성개념 간 상관 계수

	접속을 위한 자기노출	존속을 위한 자기노출	자기통제력	사이버 따돌림 피해 경험	사이버 공격 피해 경험
접속을 위한 자기노출	<b>0.791</b>				
존속을 위한 자기노출	0.549	<b>0.784</b>			
자기통제력	-0.063	-0.186	<b>0.824</b>		
사이버 따돌림 피해 경험	0.273	0.270	-0.264	<b>0.781</b>	
사이버 공격 피해 경험	0.196	0.282	-0.248	0.545	<b>0.778</b>

굵게 표시된 부분은 AVE의 제곱근 값임.



실선은 변수간의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말하며, 점선은 무의미한 상관관계를 말한다.

〈그림 2〉 연구 모형의 가설 검정 결과

###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를 통해 사이버 공격 피해 경험과 사이버 따돌림 피해 경험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두 피해 경험은 상당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은 사이버 따돌림 피해 경험을 당한 피해자의 경우 더 심각한 사이버불링인 사이버 공격의 피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이버 따돌림을 경험한 피해자는 원인이 무엇이든, 더 심각한 사이버 공격에 노출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애초에 사이버불링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피해자의 경우 더욱 경각심을 갖고 차후에 발생할 수 있는 사이버불링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아가 학계에서는 사이버불링의 단계를 심각성에 따라 분류하고, 낮은 수준의 사이버불링이 높은 수준의 사이버불링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연구하여야 한다.

한편 앞서 언급하였듯 SNS에서 사용자가 하

는 자기노출의 방식은 매우 다양하지만, 본 연구는 이것을 ‘접속을 위한 자기노출’과 ‘존속을 위한 자기노출’로 분류하였다. 이 두 유형의 자기노출은 각각 사이버 따돌림과 사이버 공격에 더 강한 영향을 줄 것이라고 가설을 설정하였다. 연구 결과, ‘접속을 위한 자기노출’은 사이버 따돌림에 더 강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또한 ‘존속을 위한 자기노출’은 사이버 공격 피해 경험에 더 강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얻었다.

접속을 위한 자기노출은 SNS 내에서 계정을 만들거나 본인을 다른 사용자와 식별하기 위해 설정하는 정보들, 즉 SNS 프로필 정보의 자발적 노출을 의미한다. 이러한 프로필 정보는 불특정 다수에게 보여주고 싶은 자신의 모습으로 이를 보는 사람들은 프로필을 수정하는 특정인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이런 노출을 통해 그 사람을 판단하거나 이것을 자랑하는 행위로 여길 수 있다 (Wang and Stefanone, 2013). 선행연구는 자랑하는 것을 따돌림 당하는 피해자의 속성 중 하나로 다

르고 있다(Bronwyn, 1982). 본 연구 결과, ‘접속을 위한 자기노출’은 선행연구와 마찬가지로 사이버 따돌림과 긍정적인 관계가 있지만 사이버 공격과의 관계는 증명되지 않았다.

한편 ‘존속을 위한 자기노출’은 사이버 공격 피해 경험과는 긍정적인 관계가 있지만 사이버 따돌림과의 관계는 증명되지 않았다. ‘존속을 위한 자기노출’은 SNS에서 글이나 사진을 자주 업데이트하거나 댓글을 올리는 행위로 불특정다수에 자신이 보여주고 싶은 자신의 모습이라기보다는 특정한 일에 대한 본인의 생각이나 의견 혹은 다른 특정인에 대한 본인의 감정이나 생각을 표현하는 행위이다. 따라서, 이 행위는 의도하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특별한 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게 된다. 따라서 이를 본 가해자들은 이를 이용하여 콘텐츠를 올린 특정인에 대해 공격할 수 있게 된다. 피해자의 사이버불링 피해 가능성에 대한 인지 여부와 관계 없이 가해자에게 특정인의 콘텐츠나 의견, 생각 등이 자주 노출되는 것은 이것을 토대로 가해자가 얼마든지 노출된 콘텐츠를 편집하여 없던 소문을 만들거나 ‘글’이나 ‘댓글’로 공격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SNS 사용자들은 SNS 내에서 적절한 수준의 자기노출을 해야 하며, 이것으로 인해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사이버불링 피해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선행연구들은 자기 통제력이 낮은 사람들이 컴퓨터와 관련된 일탈 행위를 일삼기 쉽다고 제시하며(임영식, 1988), 자기 통제력과 범죄에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제시한다. 따라서 자기 통제력이 범죄로 발전할 수 있는 사이버 공격과 사이버 따돌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 그 중에서도 다른 사람과 직접적인 의사소통 및 상호 작용에 의해 발생하는 사이버 공격에 더 강하게 영향을 줄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하지만 연구 결과가 가설이 기각되었는데, 이것은 다음과 같이 해석될 수 있다. 낮은 수준의 자기통제력을 가진 사람들은 순간의 기분이나 분위기에 휩쓸려 의도한 것과 다

른 행동을 할 수 있다(하창순, 2004). 즉, 온라인 환경에서 자기 통제가 잘 되지 않는 SNS 사용자는 SNS를 사용하는 순간 충동적인 행동을 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과 소통하는 방식이 달라지거나 같은 상황에 대해 다른 행동을 취할 수 있다. 이러한 일관적이지 않은 태도는 오프라인에서 따돌림을 당하는 원인으로 여겨진다(박금순, 2015). 즉, 이렇게 스스로 본인의 행동을 통제하지 못하는 모습이 사이버 따돌림을 당하는 원인이 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오히려 이런 낮은 수준의 자기 통제력은 사이버 공격과 관련이 없는 것은 이들이 사이버 공격을 받았을 때, 어떻게 행동하게 될 지 모르기에 오히려 사이버 공격과는 관련이 없을 수도 있다. 이 부분에 대한 미래에 구체적인 연구가 더욱 필요할 것 같다.

현대 사회에서 SNS는 이미 일상 생활의 한 영역으로 자리잡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통해 다양한 긍정적 이익을 취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을 악용하는 가해자들이 SNS에 상주하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하여야 한다. 특히 연구결과로 미루어 보아 사이버 공격의 가해자들은 SNS 내에서 포스팅을 자주 하거나 댓글을 자주 올리는 사람들을 괴롭힘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또한 사이버 따돌림은 SNS 내에서 본인의 정보를 자주 수정하거나 낮은 수준의 자기통제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많이 일어나기에 이런 사람들이 SNS에서 일방적으로 무시되거나 배제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이버불링을 방지하기 위해 SNS 사용자는 과도하지 않은 적절한 수준의 자기노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자기노출을 통해 공유한 콘텐츠가 괴롭힘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본 연구가 기여하는 점은 다양하다. 먼저, 본 연구는 자기노출을 ‘접속을 위한 자기노출’과 ‘존속을 위한 자기노출’로 분류하였다. 앞서 언급하였듯, 자기노출이 SNS 사용자에게 특별하거나 어려운 행위가 아니라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행위라는 점에서 SNS에서의 자기노출에 대한 연구가



더욱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분류한 자기노출의 두 유형은 앞으로 진행될 연구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사이버불링의 연구가 아직 시작단계에 있지만, 본 연구를 통해 사이버불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자기노출과 자기 통제력을 증명할 수 있었다. 사이버불링의 위험성이 더욱 커지고 있기 때문에 더욱 다양한 요인을 찾고, 발생 가능성을 낮추는 것이 올바른 인터넷 문화를 유도하는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특히 각 유형의 자기노출과 자기통제력이 사이버불링 종류에 서로 다른 영향을 준다는 점은 기여하는 바가 높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요인들을 통해 기존 사이버불링 연구에 새로운 의의를 제시한다.

본 연구는 한 종류의 사이버불링의 피해가 다른 종류의 사이버불링의 피해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특히 사이버 따돌림의 피해 여부가 사이버 공격 피해 여부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는데, 이것으로 미루어 보아 소극적인 사이버불링은 적극적인 사이버불링의 전 단계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피해자의 입장에서 더욱 경각심을 가져야 할 문제이다. 따돌림은 개인과 개인, 혹은 개인과 그룹의 문제로 인식될 수 있지만, 사이버 공격은 개인 정보가 인터넷에 함부로 유출되거나 원치 않은 정보가 공유되는 수준의 문제이므로 대처가 어렵고 2차, 3차의 범죄적 피해를 낳을 수 있다. 따라서 애초에 사이버불링을 당하지 않도록 적절한 수준의 자기노출을 유지해야 하며, 이미 사이버 따돌림을 당한 경험이 있다면 차후에 발생할 수 있는 사이버불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나아가 기존 사이버불링의 피해, 혹은 가해 경험의 주된 연구 대상은 미국이나 유럽의 초·중·고등학생이었다. 우리나라 역시 140만 개 이상의 페이스북 계정이 생성될 만큼 SNS가 많이 보급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사이버불링의 실태를 조사하는 것 또한 중요한데, 본 연구를 통해

SNS를 이용하는 대학생들의 자기노출과 사이버불링의 연관관계를 연구할 수 있었다.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얻었지만, 이번 연구에는 한계점 또한 존재한다. 첫째, 본 연구의 연구 대상은 대학생이었다. 물론 이들은 SNS를 가장 활발하게 사용하는 집단이지만 보다 다양한 데이터 표본을 통한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전 연령대를 대상으로 일반화하기는 어려운 연구결과를 얻었다 할 수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 중 사이버불링 피해 경험의 평균 설문 응답이 2점대로 비교적 낮아 보이지만, 분석에 사용한 응답 190개 중 모든 문항에서 사이버불링 피해 경험이 없는 응답자는 27명, 미미한 피해 경험을 했던 응답자는 17명이고, 나머지 146명의 응답자는 적어도 한가지 유형의 사이버불링을 당해 일정수준 이상의 피해를 입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향후 피해 경험이 높은 사람들을 더욱더 많이 포함하여 피해 경험 정도에 따라 그룹을 나누어 비교 연구를 하면 이 분야에 좀 더 심도 깊은 연구가 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사이버불링의 또 다른 유형인 사칭을 배제해서 한계를 남겼다. 따라서 향후 진행될 연구에서 사칭을 포함하여 연구한다면 폭 넓은 조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결과는 자기노출과 사이버불링 피해 경험의 유의미한 관계를 밝히는 데에 기여하였다. 나아가 자기노출의 종류와 자기 통제력이 사이버불링의 정도에 따른 분류에 어떻게 다르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규명하여 향후 새로운 연구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 참 고 문 헌

- [1] 김대진, 김진수, “SNS(Social Network Service)의 사용자 만족과 지속적사용 향상을 위한 방안”, *Information Systems Review*, 제17권, 제1호, 2015, pp. 171-197.
- [2] 김은경, *청소년의 사이버 불링에 영향을 미치는*

- 는 관련 변인 연구 (박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대학원, 2012.
- [3] 민진영, 김병수, “프라이버시 계산 모형을 적용한 SNS 지속 사용 의도에 대한 연구: 페이스북과 카카오톡 사례 중심으로”, *Information Systems Review*, 제15권, 제1호, 2013, pp. 105-122.
- [4] 박경숙, 손희권, 송혜정, *학생의 왕따(집단 따돌림) 및 괴롭힘현상에 관한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1998.
- [5] 박금숙,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과 집단따돌림 가해·피해 경험 간의 관련성 연구* (박사학위논문), 한세대학교 일반대학원, 2015.
- [6] 서진욱, ‘찾은 알림음, 커지는 신음...’ 메신저 감옥’, *주먹보다 아픈말*’, 머니투데이, 2016. 10.06, Available at: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6100417314218752&outlink=1>.
- [7] 안수미, 장재연, 김지동, 김범수, “SNS에서 프라이버시 침해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Information Systems Review*, 제16권, 제2호, 2014, pp. 1-23.
- [8] 이경희, *초등학생의 집단따돌림 유형별 발생 원인의 성분비교: 사회관계모형분석* (석사학위논문),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2005.
- [9] 임영식, “학교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제15권, 제3호, 1998, pp. 27-39.
- [10] 하창순, *한국판 자기통제력 척도 타당화 연구* (박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대학원, 2004.
- [11] 한국정보화진흥원, “한·미·일 SNS 서비스 비교 분석”, *IT정책연구시리즈*, 제11호, 2009.
- [12] Bagozzi, R. P. and Y. Yi, “On the evaluation of structural equation models”, *Journal of the Academy of Marketing Science*, Vol.1, No.1, 1988, pp. 74-94.
- [13] Barker, V., “Older adolescents’ motivations for social network site use: The influence of gender, group identity, and collective self-esteem”, *Cyberchology & Behavior*, Vol.12, No.2, 2009, pp. 209-213.
- [14] Belsey, B., *Cyberbullying.ca*, 2004, Available at [www.cyberbullying.ca](http://www.cyberbullying.ca).
- [15] Beran, T. and Q. Li, “The relationship between cyberbullying and school bullying”, *The Journal of Student Wellbeing*, Vol.1, No.2, 2008, pp. 16-33.
- [16] Blau, P. M., *Exchange and Power in Social Life*, John Wiley, New York, NY, 1964.
- [17] Boyd, D., “Why youth (Heart) social network sites: The role of networked publics in teenage social life”, in D. Buckingham (ed.) *Youth, Identity, and Digital Media*, The MIT Press, Cambridge, MA, 2008, pp. 119-142.
- [18] Brancaute, F., “Facebook statistics: The numbers game continues”, *The Blog Herald*, 2010, Available at <http://www.blogherald.com/2010/08/11/facebook-statistics-the-numbers-game-continues>.
- [19] Bronwyn, D., *Life in the Classroom*, Routledge & Kegan Paul, London, 1982.
- [20] Bullas, J., “33 social media facts and statistics: You should know in 2015”, 2015, Available at <http://www.jeffbullas.com/2015/04/08/33-social-media-facts-and-statistics-you-should-know-in-2015>.
- [21] Carpenter, C. J., “Narcissism on Facebook: Self-promotional and anti-social behavior”,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Vol.52, No.4, 2012, pp. 482-486.
- [22] Chen, R., “Living a private life in public social networks: An exploration of member self-disclosure”, *Decision Support Systems*, Vol.55, No.3, 2013, pp. 661-668.
- [23] Cleemput, K. V. and H. Vandebosch, “Defining cyberbullying: A qualitative research into the perceptions of youngsters”, *Cyberchology & Behavior*, Vol.11, No.4, 2008, pp. 499-503.

- [24] Collins, N. L. and L. C. Miller, "Self-disclosure and liking: A meta-analytic review", *Psychological Bulletin*, Vol.116, No.3, 1994, pp. 457-475.
- [25] Derlega, J. V. and J. Grezelak, "Appropriateness of self-disclosure", in G. J. Chelune (ed.), *Self-Disclosure: Origins, Patterns, and Implications of Openness in Interpersonal Relationships*, Jossey-Bass, San Francisco, 1979, pp. 151-176.
- [26] Dooley, J. J., J. Pyżalski, and D. Cross, "Cyberbullying versus face-to-face bullying: A theoretical and conceptual review", *Journal of Psychology*, Vol.217, No.4, 2009, pp. 182-188.
- [27] Dredge, R., J. Gleeson, and X. D. L. P. Garccis, "Presentation on Facebook and risk of cyberbullying victimisation", *Computers in Human Behavior*, Vol.40, No.1, 2014, pp. 16-22.
- [28] Elizabeth., C., I. Magdalena., W. Kevin, C. Cory, and P. Nicole, *Will you be my friend?: Computer-mediated relational development on Facebook.com*, San Francisco, CA, International Communication Association, 2007.
- [29] Ellison, N. B. and M. D. Boyd, "Social network sites: Definition, history, and scholarship", *Journal of 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 Vol.13, No.1, 2008, pp. 210-230.
- [30] Ellison, N. B., C. Steinfield, and C. Lampe, "The benefits of Facebook "friends": Social capital and college students' use of online social network sites", *Journal of 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s*, Vol.12, No.4, 2007, pp. 1143-1168.
- [31] Erder-baker, Ö., "Cyberbullying and its correlation to traditional bullying, gender and frequent and risky usage of internet mediated communication tools", *New Media Society*, Vol.12, No.1, 2010, pp. 109-125.
- [32] Fornell, C. and D. F. Larcker, "Evalua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with unobservable variables and measurement error",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Vol.18, No.1, 1981, pp. 39-50.
- [33] Fornell, C. and F. L. Bookstein, "Two structural equation models: LISREL and PLS applied to consumer exit-voice theory",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Vol.19, No.4, 1982, pp. 440-452.
- [34] Hamer, A. d., E. A. Konijn, and M. G. Keijer, "Cyberbullying behaviors and adolescents' use of media with antisocial content: A cyclic process model", *Cyberpsychology, Behavior, and Social Network*, Vol.17, No.2, 2014, pp. 74-81.
- [35] Haynie, D. L., T. Nansel, P. Eitel, A. D. Crump, K. Saylor, K. Yu, and B. Simons-Morton, "Bullies, victims, and bully/victims: Distinct groups of at-risk youth", *The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Vol.21, No.1, 2001, pp. 29-49.
- [36] Henderson, M., M. D. Zwart, D. Lindsay, and M. Phillips, "Legal risks for students using social networking sites", *Australian Educational Computing*, Vol.25, No.1, 2010, pp. 3-7.
- [37] Hinduja, S. and J. W. Patchin, "2015 cyberbullying data", Cyberbullying Research Center, 2015, Available at <http://cyberbullying.org/2015-data>
- [38] Ho, K., "41 Up-to-Date Facebook Facts and Stat", 2015, Available at <http://blog.wishpond.com/post/115675435109/40-up-to-date-facebook-facts-and-stats>.
- [39] Homans, G. G., "Social behavior as exchange",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Vol.63, No.6, 1958, pp. 597-606.
- [40] Irwin, A. and T. A. Dalmis, *Social Penetration: The Development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s*, Holt Rineheart & Winston, Oxford, England, 1973.
- [41] John, T. W. and H. H. Kelley, *The Social Psychology of Groups*, John Wiley & Sons, Inc., New York, 1959.
- [42] Jourard, S. M., *The Transparent Self*, Princeton N.J: D. Van Nostrand, 1964.

- [43] Kang, C., "Nine of 10 teenagers have witnessed bullying on social networks, study finds", Washington Post, 2011, Available at [https://www.washingtonpost.com/business/economy/nine-of-10-teenagers-have-witnessed-bullying-on-social-networks-study-finds/2011/11/08/gIQAPqUq3M\\_story.html](https://www.washingtonpost.com/business/economy/nine-of-10-teenagers-have-witnessed-bullying-on-social-networks-study-finds/2011/11/08/gIQAPqUq3M_story.html).
- [44] Kietzmann, J. H., K. Hermkens, and I. P. McCarthy, "Social media? get serious! understanding the functional building blocks of social media", *Kelley School of Business*, Vol.54, No.3, 2011, pp. 241-251.
- [45] Kuss, D. J. and M. D. Griffiths, "Online social networking and addiction: A review of the psychological literature", *Journal of Environmental Research and Public Health*, Vol.9, No.9, 2011, pp. 3528-3552.
- [46] Kwan, G. C. E. and M. M. Skoric, "Facebook bullying: An extension of battles in school", *Computers in Human Behavior*, Vol.29, No.1, 2013, pp. 16-25.
- [47] Langos, C., "Cyberbullying: The challenge to define", *Cyberpsychology, Behavior, and Social Networking*, Vol.15, No.6, 2012, pp. 285-289.
- [48] Li, Q., "Cyberbullying in schools; A research of gender differences", *School Psychology International*, Vol.27, No.2, 2006, pp. 157-170.
- [49] Liu, Z., Q. Min, Q. Zhai, and R. Smyth, "Self-disclosure in Chinese micro-blogging: A social exchange theory perspective", *Information & Management*, Vol.53, No.1, 2013, pp. 53-63.
- [50] Logue, A. W., *Self-control: Waiting until Tomorrow for What You Want Today*, Englewood Cliffs, NJ, US: Prentice-Hall, 1995.
- [51] Lowry, P. B., J. Cao, and A. Everard, "Privacy concerns versus desire for interpersonal awareness in driving the use of self-disclosure technologies: The case of instant messaging in two cultures", *Journal of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s*, Vol.27, No.4, 2011, pp. 163-200.
- [52] Marées, N. V. and F. Petermann, "Cyberbullying: An increasing challenge for schools", *School Psychology International*, Vol.33, No.5, 2012, pp. 467-476.
- [53] Menesini, E., A. Nocentini, B. E. Palladino, A. Frise'n, S. Berne, R. Ortega-Ruiz, J. Calmaestra, H. Scheithauer, A. Schultze-Krumbholz, P. Luik, K. Naraskov, C. Blaya, J. Berthaud and P. K. Smith, "Cyberbullying definition among adolescents: A comparison across six European countries", *Cyberpsychology, Behavior, and Social Networking*, Vol.15, No.8, 2012, pp. 455-463.
- [54] Mishna, F., M. Khoury-Kassabri, T. Gadalla, and J. Daciuk, "Risk factors for involvement in cyber bullying: Victims, bullies and bully-victims",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Vol.34, No.1, 2012, pp. 63-70.
- [55] Naruskov, K., P. Luik, A. Nocentini, and E. Menesini, "Estonian students' perception and definition of cyberbullying", *TRAMES*, Vol.16, No.4, 2012, pp. 323-343.
- [56] Nocentini, A., J. Calmaestra, A. Schulze-Krumbholz, H. Scheithauer, R. Ortega, and E. Menesini, "Cyberbullying: Labels, behaviours and definition in three European countries", *Australian Journal of Guidance & Counselling*, Vol.20, No.2, 2010, pp. 129-142.
- [57] Orth, U. and R. W. Robins, "The development of self-esteem",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Vol.23, No.5, 2014, pp. 381-387.
- [58] Posey, C., B. Lowry, T. L. Roberts, and S. Ellis, "Proposing the online community self-disclosure model: The case of working professionals in France and the UK who use online communities", *European Journal of Information Systems*, Vol.19, No.2, 2010, pp. 181-195.

- [59] Prinstein, M. J., J. Boergers, and E. M. Vermberg, "Overt and relational aggression in adolescents: Social-psychological adjustment of aggressors and victims", *Journal of Clinical Child & Adolescent Psychology*, Vol.30, No.4, 2001, pp. 479-491.
- [60] Ross, C., E. S. Orr, M. Sisic, J. M. Arseneault, M. G. Simmering, and O. R. R., "Personality and motivations associated with Facebook use", *Computers in Human Behavior*, Vol.25, No.2, 2009, pp. 578-586.
- [61] Sheldon, P., "I'll poke you. You'll poke me! Self-disclosure, social attraction, predictability and trust as important predictors of Facebook relationships", *Journal of Psychosocial Research on Cyberspace*, Vol.3, No.2, 2009, pp. 5-15.
- [62] Smith, P. K., J. Mahdavi, M. Carvalho, S. Fisher, S. Russell, and N. Tippett, "Cyberbullying: Its nature and impact in secondary school pupils",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Vol.49, No.4, 2008, pp. 376-385.
- [63] Statista, "Global social networks ranked by number of users", 2016, Available at <http://www.statista.com/statistics/272014/global-social-networks-ranked-by-number-of-users>.
- [64] Statista, "Number of daily active Facebook users worldwide as of 2nd quarter 2016", 2016, Available at <http://www.statista.com/statistics/346167/facebook-global-dau>.
- [65] Statista, "Number of worldwide social network users", 2015, Available at <http://www.statista.com/statistics/278414/number-of-worldwide-social-network-users>.
- [66] Tenenhaus, M., V. E. Vinzi, Y. M. Chatelin, and C. Lauro, "PLS path modeling", *Computational Statistics and Data Analysis*, Vol.48, No.1, 2005, pp. 159-205.
- [67] Trepte, S. and L. Reinecke, "The reciprocal effects of social network site use and the disposition", *Computers in Human Behavior*, Vol.29, No.3, 2012, pp. 1102-1112.
- [68] Valkenburg, P. M. and J. Peter, "Online communication among adolescents: An integrated model of its attraction, opportunities, and risks", *Journal of Adolescent Health*, Vol.48, No.2, 2011, pp. 121-127.
- [69] Wakefield, R., "The influence of user affect in online information disclosure", *The Journal of Strategic Information Systems*, Vol.22, No.2, 2013, pp. 157-174.
- [70] Walrave, M., I. Vanwesenbeeck, and W. Heirman, "Connecting and protecting? Comparing predictors of self-disclosure and privacy settings use between adolescents and adults", *Journal of Psychosocial Research on Cyberspace*, Vol.6, No.1, 2012, Article 3.
- [71] Wang, S. S. and M. A. Stefanone, "Showing off? Human mobility and the interplay of traits, self-disclosure, and Facebook check-ins", *Social Science Computer Review*, Vol.31, No.4, 2013, pp. 437-457.
- [72] Willard, N., *Cyberbullying and Cyberthreats*, National Conference, 2005.
- [73] Zhao, Y., Y. Jia, and Y. Lin, "Effects of system characteristics on users' self-disclosure in Social Networking sites", *Information Technology: New Generations (ITNG)*, 2010 Seven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2010.

## Self-Disclosure and Cyberbullying on SNS

Jooyeon Won\* · DongBack Seo\*\*

### Abstract

Since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ies, social networking sites (SNSs) have been diffused to the world with benefits such as building and maintaining relationships among people. SNSs have become more popular with the development of mobile devices. Despite this advantage, SNSs also present unexpected effects on people, such as cyberbullying and identity theft. Cyberbullying has emerged as one of the most serious issues among people who use SNSs. In fact, almost 20% of teenagers confessed that they have been cyberbullied on SNSs. In consideration of this serious social issue, this study investigates the influences of self-disclosure and self-control on the cyberbullying victimization experience from the perspective of Social Exchange Theory. Self-disclosure is a basic characteristic of SNSs. It is classified into self-disclosure for access to SNS and self-disclosure for relationship building and maintaining on SNSs. The cyberbullying victimization experience is classified into being cyber-excluded and being cyber-attacked. We examine how two types of self-disclosure and self-control affect two types of cyberbullying victimization experience based on the survey data of people who are in their 20s and are greatly familiar with SNS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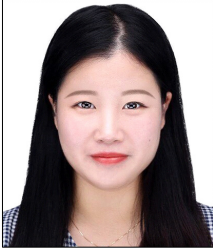
**Keywords:** *Cyberbullying, Self-Disclosure, Self-Control, Social Exchange Theory*

---

\* Global Studies on Management and Information Science (GLOMIS), Graduate School,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 Corresponding Author, Department of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s,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 ◎ 저 자 소 개 ◎



**원 주 연 (wjy9243@gmail.com)**

현재 충북대학교 대학원 국제경영정보과학 협동과정에 재학 중이다. 주요 관심 분야는 SNS, 커뮤니케이션, 마케팅 등이다.



**서 동 백 (dseo@chungbuk.ac.kr)**

Seo earned her Doctor of Philosophy and Masters of Science in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s from the University of Illinois at Chicago. Prior to pursuing the Ph.D. program, she worked as a software engineer in a wireless communications firm and as a small business owner. Her publications include three books, recently published *Evolution and Standardization of Mobile Communications Technology*, as well as a class manual and several chapters. Her papers have been published in many journals (e.g., *Communications of the ACM*, *European Journal of Information Systems*, *Technovation*, *Government Information Quarterly*, etc.) and conference proceedings (e.g., *International Conference on Information Systems*, *European Conference on Information Systems*, etc.). Her research interests include the areas of adoption of IT/IS-enabled services from the perspectives of individuals and organizations, organizational standards strategy, business convergence, mobile commerce, and analysis of competitive dynamics in rapidly changing industries. She is currently an associate professor in the Department of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s at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Republic of Korea.

논문접수일 : 2016년 11월 14일

게재확정일 : 2017년 01월 17일

1차 수정일 : 2017년 01월 14일